

##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金 峻 亨\*

### 1. 들어가는 말

萬德(1739~1812)은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인물로, 제주 도민에게는 '만덕 할망'이라는 범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 도민에게 만덕은 단순히 '義人'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까지 하고 있다. 만덕이 처음 묻혔던 2오니마루[並園旨] 근처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그의 묘를 慕忠祠에 옮겨 모시다가 하면, 1980년에는 '만덕상'을 제정하여 매년 한라문화제 때 '근검 절약으로 역경을 이겨내어 성가한 후에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여인 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sup>1)</sup> 제주 도민에게 만덕의 의미는 특별하다.

만덕이 제주 도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까닭은 그의 행적에서 비롯된 다. 1795년 봄 大饑饉 때, 官에서도 구휼하지 못한 제주 도민을 만덕이 직접 千金을 내어 구호했던 행적이 그것이다.<sup>2)</sup> 기아에 허덕이던 제주 도민들은 만덕을 生佛처럼 여겼을 것이고, 宦路에 있던 관료들 역시 만덕을 의인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제주 도민들에게 만덕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으나, 관료들에게 만덕은 단순히 기특한 인물로 보였던 것이다. 관료들의 시각에서

\* 고려대 박사과정

1) 제주도 편,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2)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169~172쪽.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너무나도 부합되는 인물인 것이다. 때문에 조 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傳을 짓게 하였고, 많은 관료들이 만덕 을 위한 글을 지었다.

이 글은 그 동안 우리 학계에 알려진 만덕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만덕 이야기>가<sup>3)</sup>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 전승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만덕 이야기>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 다.<sup>4)</sup> 그러나 대부분은 자료 해제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작품 의 해제 역시 채제공의 <만덕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덕 이야기 >가 지니는 의미가 어떠한가를 적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최 근 김영진은 孝田 沈魯崇(1762~1837)의 산문 문학을 다루는 자리에서 기존의 <만덕 이야기>와는 색다른 <만덕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다.<sup>5)</sup> 특히 심노승의 부친 沈樂洙(1739~1799)는 만덕이 제주 도민을 진휼하기 몇 달 전까지 제주목사로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심노승의 기록은 주목 을 요한다.

## 2. 만덕의 생애

만덕의 생애는 김봉옥과 제주도에 의해 이미 상세하게 고찰된 바 있다. 따라서 만덕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자료에 기대며, 그 외 미흡한 부분은 다른 자료를 통해 첨입키로 한다.

- 
- 3) 본고에서 쓰는 <만덕 이야기>는 만덕과 관련되어 유전되어 온 모든 자료를 포 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傳과 구전설화를 포함함은 물론이고, 넓게는 한시까지 포함할 수 있다.
  - 4) 이동근, 『조선후기 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 성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승복, 「번암 채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준하, 「채제공의 전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 5)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만덕(1739~1812)은 본관은 김해로, 부친 金應悅과 모친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만덕의 몸은 富大하고 키는 長大하였고 겹눈동자[重瞳]을 가지고 있었다.<sup>6)</sup> 만덕의 나이 12세 되던 해인 1750년에 부모가 구물하자 형제들과 이별하고 기방에 얹혀 살게 되었다. 18세 되던 1756년에 妓籍에 이름을 올려, 23세되던 1762년에 관가에 호소하여 妓案에서 이름을 삭제할 때까지 5년 동안 妓役に 종사하였다.<sup>7)</sup> 19세 때에는 巡撫御史 李度遠과 만난 동안 인연을 맺고 그가 준 돈으로 경제적 기반을 잡았다고도 하지만<sup>8)</sup>, 이도원(1684~?)의 생몰 년을 고려할 때 사실은 아닌 듯하다.

만덕이 妓案에서 이름을 삭제한 1762년부터 1795년 대흥년 때 재산을 내놓아 제주 도민들을 구휼할 때까지의 행적은 묘연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이든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체제공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물가의 높고 낮음을 때에 맞춰 내어놓기도 하고 독점하기도 하기를 몇십 년 동안 하였'던<sup>9)</sup>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노승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만덕은 기생으로 있는 동안 제주에 온 상인을 통해 致富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sup>10)</sup> 그 당시 제주에서 치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매점매석과 객주업에 있었는데,<sup>11)</sup> 만덕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치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만덕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축적한 재산을 1795년 대기근 때 내놓아 그 중 10%는 자신의 친족을 구하고 나머지는 도민을 구휼했다.<sup>12)</sup> 그 사실을

6) 淡水契, 『증보 탐라지』, 프린트판, 1954.

7)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김봉옥, 앞의 책, 1990.

8) 박용옥, 「만덕」, 『여성』 176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6. 50쪽.

9) 체제공, <만덕전>,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10) 심노승의 기록은 이후 전편을 소개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인용은 생략한다.

11) 朴趾源의 『許生傳』과 이와 유사한 『此山筆談』의 <허생 이야기>에서 매점매석의 양상을 볼 수 있으며, 『靑邱野談』에서 감과 무역을 하던 상인의 구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제주목사 李禹鉉이 장계를 올렸고, 조정에서는 만덕의 소원을 물어 당시 제주 여성은 육지로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1796년 만덕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평민 신분으로 임금을 직접 뵈 수 없기 때문에 內醫院 醫女의 行首로 삼아 임금을 알현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고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로 돌아오고 12~13년이 지난 1812년 10월 22일 만덕은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제주로 돌아와서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 다만 만덕의 유언이 “내가 죽거든 성안을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sup>12)</sup> 했다는 것만이 확인된다. 그 후 1840년 秋史 金正禧는 대정현에 유배되어 왔으면서 만덕의 행적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恩光衍世]’는 글을 써 주었다.

### 3. 만덕의 진흙 배경과 입전 배경

만덕이 어떻게 치부를 했든 간에, 1795년(정조 19년) 제주의 큰 흉년에 만덕이 제주 도민을 진흙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도는 단순히 1795년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양상은 있었다. 예컨대 1793년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姜鳳瑞가 상소하고 정조가 이에 비답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장령 강봉서가 상소하기를,

“제주도는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지만 지난 해처럼 추수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 지 모르는데, 올해 8월에 또 큰바람이 연일 불어서 旌義縣과 大靜縣은 赤地나 다름없고, 제주 左面과 右面은 혹심한 재해를 입어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중략)…”

12) 채제공, <만덕전>.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13)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81쪽. 그러나 그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작년에 굶어 죽은 백성의 수가 네가 말하였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중략)… 더구나 섬 안에서 굶어 죽는 자가 몇 천 명이나 되는 지 모른다고 하니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들어보지 못할 일이라 하겠다. ...(하략)”<sup>14)</sup>

위 사실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제주도는 이미 1792년부터 심각할 정도의 흉년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을 그대로 신봉하면, 1792년에는 추수할 것이 전혀 없어 그 해 겨울에서부터 그 다음해인 1793년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만도 수천명이었다. 그리고 1793년 8월에는 큰 태풍이 있어 제주도 전역은 심각한 재해를 입어, 그 다음해는 그 해(1793)보다도 더 심각한 재난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조가 직접 말한 바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최악의 자연 재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들은 친족들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여 받는 徵族을 심히 하여 백성들은 이중고를 당해야 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제주도에 12년만에 심낙수를 어사로 삼아 보내기도 한다.<sup>15)</sup>

그러나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최악의 상황은 해마다 계속되었다. 그 극점은 1794년 겨울부터 1795년에 늦봄까지로 보인다. 1794년 겨울 제주의 인구는 62,698구였으나, 1795년 겨울에는 47,735구로 줄었으니 불과 일년 사이에 17,963구가 굶주려 죽었다는 통계가 나온다.<sup>16)</sup> 한 해에 제주 도민의 30% 정도가 굶어 죽은 셈이다. 이 때

14) 『증보판 CD-ROM 조선왕조실록』 3집, 『정조실록』 17년 11월 11일조. 서울 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7.

『정조실록』 19, 민족문화추진회, 1993. 97쪽. “掌令姜鳳瑞上疏曰 耽羅一島屢值凶荒 去年秋事之大無 前所未有 自冬至夏 民人饑死 不知幾數千名 今年八月 又連日大風 旌義大靜 殆同赤地 濟州左右面 被災亦酷 來春呼飢 必倍於今年 …(중략)… 批曰 …(중략)… 昨年饑民之填壑 爾既言其數 看來良欲無言 …(중략)… 況島中填壑之不知爲幾千名云者 可謂前未聞後未聞 …(하략)” 19쪽 上.

15) 『정조실록』 17년 11월 24일조.

16) 『정조실록』 20년 1월 15일조.

조정에서는 海神祭까지 드리고<sup>17)</sup> 1795년 10월부터 1796년 4월까지 총 35,123석의<sup>18)</sup> 賑恤穀을 배에 실어 제주로 보낸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11,000석의 진흙곡을 실은 배는 중간에 바람으로 인해 파선되어<sup>19)</sup> '날알 하나가 천금과 맞먹던' 당시 제주 도민의 큰 상처가 되었다.

이 때 제주 도민 중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던 곡식이나 돈을 내어 도민을 구휼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사 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중략)... 본주 사람으로 전 현감 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흙에 보탠 것이 무려 3백석이나 되고,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백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중략)...”

하니 하교하시기를,

“...(중략)... 전 현감 高漢祿이 매번 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 (하략)”<sup>20)</sup>

위의 기록을 보면 高漢祿·홍삼필·양성범 등과 같은 인물은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제주 도민을 구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高漢祿은 '매번' 私財를 내놓으면서까지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 만덕 역시 이들 처럼 사재를 털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던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다만 만덕이 그들과 다른 것은 기생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사실은 『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17) 『정조실록』 18년 10월 23일조.

18) 『정조실록』 20년 6월 6일조.

19) 『정조실록』 19년 2월 3일조.

20) 『정조실록』 19년 5월 11일조. “濟州牧使李禹鉉 狀啓曰 …(중략)… 本主人前縣監高漢祿 貿穀補賑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 願納穀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 …(중략)… 敎曰 …(중략)… 前縣監高漢祿 每每損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하략)” 34쪽 下.

제주에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sup>21)</sup>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포폄이 있기 마련이다. 조정에서는 제주 도민의 목숨을 구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고한록은 송품하여 서용하고, 洪相五는 兒馬를 하사하고, 홍삼필은 대정현이나 정의현 중 한 곳에 차송하라 한 것이 그 예이다.<sup>22)</sup> 조정에서는 만덕에게도 이들과처럼 일정한 상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만덕은 상을 거부하고, 그 대신 다른 요구를 한다. 만덕의 요구는 당시 제주 여성으로서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제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국법이었다.<sup>23)</sup> 만덕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하였고, 정조는 만덕의 요청을 허락한다. 이는 만덕의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지만, 그 보다는 만덕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배층의 이념과 만덕의 행위는 부합되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만덕의 행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일로 여겨졌다. 게다가 만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만덕은 장안에 화제의 인물로 부각되어 회자되었던 것이고, 또한 여러 문인들에 의해 만덕의 행위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정에서도 지배층의 이념과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 학사들에게 만덕의 행위를 칭송하는 글을 남기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의 행위가 어떻게 여러 문인들에 의해 썩어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정조실록』 20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60쪽 上.

22) 『정조실록』 20년 6월 6일조.

23) 채제공, <만덕전>,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 4. <만덕 이야기>의 존재 양상

만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은 비교적 많다. 蔡濟恭(1720~1799)의 <만덕전>, 李家煥(1742~1801)의 만덕을 만나고 지은 시[送萬德歸耽羅], 沈老崇(1762~1837)의 <桂織傳> 말미에 붙은 <만덕 이야기>, 金正喜(1786~1856)가 만덕의 행위를 듣고 '恩光衍世'라고 쓰고서 간략하게 부친 글, 劉在建(1793~1880)의 『이향견문록』에 수록한 <만덕>과 『凡谷記聞』의 시, 그리고 趙秀三(1762~1849)의 『秋齋紀異』 속의 <만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덕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작품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양상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 ①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옴에 공경대부들이 모두 글을 주기도 하고 입전 하기도 하였다.<sup>24)</sup>
- ②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도록 하였다.<sup>25)</sup>
- ③ 벼슬아치들이 모두 (만덕의) 전기를 짓고 그를 노래하였으니 고금에 드문 일이다.<sup>26)</sup>

위의 인용문만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만덕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굳이 논의를 위축시킬 이유는 없다. 이후 발견되는 자료는 차후 보완하기로 하고, 현존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창작되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舊墓碑文」, “及其還 卿大夫 皆隨章立傳”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8쪽.

25) 심노승, <계심전>, “命題敘傳 試闈中諸學士” 김영진, 앞의 논문. 44쪽.

26) 김정희, “縉紳皆傳記詠之 古今稀有也”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2쪽.



### 1) 蔡濟恭의 <萬德傳> :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

한 텍스트 안에 들어 있는 인물은 한편으로는 사회에 의해 조건 지워지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의 희생물이 된다.<sup>27)</sup> 작품 속의 인물은 언제나 작가나 독자에 의하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매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단면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혹은 이념적인 양상이든 상관없이 없다. 또한 작가는 자신, 혹은 자신이 처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학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학 형식으로서의 발전은 이데올로기 상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sup>28)</sup>

조선 후기의 전은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등장하며, 또한 그 형식도 소설로 경사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sup>29)</sup> 그러나 그 갈래의 유동성 안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변전하지 않는 문학 양식은 그 작가의 내면에는 이미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더 침잠하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채제공의 <만덕전> 역시 조선 후기에 다양하게 움직임을 보이던 전의 변모 양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보다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채제공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채제공의 <만덕전>의 경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만덕의 성은 김이고 제주 양가집 딸임
- ②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됨
- ③ 20여세에 관청에 하소연하여 양민으로 되돌림
- ④ 결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늘려 몇 십 년만에 부자로 이름이 남
- ⑤ 을묘(1795)년에 제주에 흉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 그 중 10%는 자기 친족을 살리고 나머지는 관청에 보내 도민을 구휼함
- ⑥ 제주도민 구제가 끝나자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니, 만덕이 임금이

27)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1987(7쇄). 26쪽.

28) 테리 이글턴(이경덕 옮김), 『문학비평: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38쪽.

29) 대표적인 논의로 박희병의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를 참조할 수 있다.

계신 곳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함

- ⑦ 병진(1796)년 가을에 서울에 가니 임금이 內醫院 醫女의 행수로 삼게 함
- ⑧ 임금을 뵈니 임금이 칭찬하고 상을 내림
- ⑨ 정사(1797)년 금강산을 구경하고 58년의 생애동안 처음으로 절과 부처를 봄
- ⑩ 만덕의 이름이 장안에 퍼지고 모든 사람이 만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함
- ⑪ 만덕이 떠날 때 채제공을 만나며 이별의 눈물을 흘리니, 채제공이 남도 못할 일을 했는데 지금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 <만덕전>을 그 앞에서 적어 건네줌

주지하다시피 채제공은 十年獨相이라 불리울만큼 正祖代에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 최고의 인물이 여성의 전, 그것도 기생의 전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이른 채제공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지배층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 인물을 널리 표창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전달코자 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만덕전>을 읽으면서 만덕의 행적이 기이함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채제공이 언어를 통해 담아 놓은 이데올로기를 읽어 내는 것이다. 채제공이 굳이 '傳'이라는 당시 지배층의 문학 양식을 빌린 것도 이와 같은 궤에서 설명된다.

또한 채제공은 <만덕전> 외에도 13편의 전을 더 쓰고 있다. 이 중 여성을 입전한 작품도 세 편이 있는데, <만덕전> 외에 <淸風義婦傳>과 <七分傳>이 그것이다<sup>30)</sup>. <청풍의부전>은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났는데, 기지를 써서 도적을 죽인 이야기이다. <칠분전>은 주인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죽은 계집종 칠분의 행적을 입전한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는 義婦라는 점에서, 하나는 忠婢라는 점에서 지배층의 이념과 적실하게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채제공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전을 지었던 것이다. 즉 채제공은 지배자로서

30) 김균태 편, 『문집 소재 전 자료집』 5, 태학사, 1997.

피지배자에게 봉건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여러 편의 전을 지은 것이라 하겠다. 문학 작품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일부, 즉 한 사회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당연하게’ 보이거나 완전히 은폐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복잡한 사회적 인식 구조의 한 요소이다<sup>31)</sup>. 체제공의 <만덕전> 역시 지배 계층이 하층민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그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따라오게끔 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만덕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만덕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공에게는 만덕이 제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致富를 하였고, 만덕은 왜 보다 이른 시기에 제주 도민을 진휼하지 못하고 진휼이 거의 끝날 무렵인 1795년에 재산을 흠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만덕의 제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다. 체제공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만덕이 여성으로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흠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는 결과에 있다. 동기보다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체제공은 만덕의 전을 지은 것이다. 제주에 절과 불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밖이다<sup>32)</sup>. 단순히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르는 대우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체제공은 어떠한 배경에서 <만덕전>을 지었는가? 왜 조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게 하였는가?

당시 조정은 사회의 기강이 너무 문란해져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31) 테리 이글튼(이경덕 옮김), 『문학비평: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15쪽.

32) 체제공의 <만덕전>에는 “丁巳(필자:1797)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誠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라고 쓰고 있다. 이는 곧 1797년까지 제주에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아 만덕은 금강산에 가서야 비로소 불상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太宗 때에 宦官 黃儼이 제주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절을 하였다는 기록(『東野類輯』, 아세아문화사, 1985. 118쪽. 원 출전은 『東閣雜記』) 외에도 제주에 불교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은 여러 문헌에서도 보인다.

있었다. 그 한 예로 만덕이 서울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게끔 허락이 난 정조 20년(1796년) 11월 25일을 전후한 『실록』의 기록에서도 그 양상은 보인다. 만덕에게 상경이 허락되기 불과 며칠 전인 11월 19일에 대사간 金翰東은 아주 긴 상소문을 올린다.

김한동은 먼저 임금의 몸소 검약을 실천하며 세상을 교화하고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세태를 간헐적으로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그 양상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사대부들은 기강이 서지 않아 심지어 ‘하룻밤만 숙직을 하게 되면 마치 죽으러 가거나 하는 듯이 여기’는 등 습속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염의 부녀자들도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심하여 근검 절약하는 습성이 없어졌음을 꼬집는 등 사회 전분야에서 기강이 서지 않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지적들은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의 기강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심각하였기에 김한동도 상소를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감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창하여 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만덕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였기에 ‘제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국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만덕의 행위를 칭찬해 주어야 할만큼 조정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채제공이 쓴 <만덕전> 역시 이러한 위기 의식에 대한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제공은 14편의 전 작품을 쓰고 있다. 이 중에는 전대 문헌에서 발췌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바꾼 <李節度傳>과 같은 작품도 있다. 이 작품은 車天輅의 『五山說林』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sup>34)</sup>. 채

33) 『정조실록』 20년 11월 19일조.

34) 차천로, 『오산설림초고』 85~88화. 『국역 대동야승』 II, 민족문화추진회.

제공은 자신의 이념에 맞는 인물이라면 전대 문헌에서 발췌하여 자신의 이념에 적합한 문학 형식인 전 작품으로 만들어 전달해야 했던 것도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으로 이와 같은 위기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李家煥(1742~1801)이 만덕을 보내면서 써 준 한시 역시 이와 동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와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 만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 양상은 심노승에게서 찾을 수 있다.

## 2) 沈老崇의 <桂織傳> 收載 <만덕 이야기> : 지배층에 대한 풍자

<계섬전>은 심노승이 老歌妓 계섬의 불우한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sup>35)</sup>.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는 <계섬전> 후미에 붙어 있는데, 계섬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난 후, 그와 상반되는 인물로 만덕을 거론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 전편을 수록하기로 한다.

지난해(1796)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隸局의 婢首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고는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어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니 군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다니 이리하여 만덕은 제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니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딸이 낙낙가판타 여겨 여러 학사들이 전을 지어 다 칭찬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나서 다시

---

1985(2쇄). 512~513쪽.

35)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37쪽.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는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 계섬의 이른 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 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sup>36</sup>).

심노승의 <계섬전> 收載 <만덕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이 씌어진 시기와 같은 1797년에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채제공은 만덕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반면, 심노승은 만덕을 보잘 것 없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심노승은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前年까지 제주 목사로 있던 심낙수의 아들인데, 심노승 역시 1794년 5월에 제주에 가서 4개월 남짓 머물렀다<sup>37</sup>. 따라서 심노승의 기록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노승의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심노승이 직접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라고 언술을 하고 있다든지,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는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 라고 평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노승의 기술이 허위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sup>38</sup>. 물론 심노승은 소론이였기 때문에 남인인 채제공이 쓴 <만덕전>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더 신랄하게 만덕을 비판했을 가능성도 있다<sup>39</sup>. 하지만 심노승의 <계섬

36) 심노승, 『계섬전』, 前年耽羅妓萬德 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絃傳 試闈中諸學士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藏男子衣袴累百數 每纏纏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可觀 諸學士絃傳多稱之 余既爲桂織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織所謂遇不遇又何足道也. 번역은 김영진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37)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연보 참조.

38)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拔齒설화와 『배비장전』의 초반부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치설화나 『배비장전』의 무대 배경이 제주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만덕의 행위가 채설 소설의 배경을 제주로 삼게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9)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45쪽.

전>을 그대로 따른다면, 만덕은 자신의 욕심, 즉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재산을 내어 도민을 구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덕이 치부를 하게 된 것도 무역업이나 매점매석이 아닌 기생으로 있으면서 돈이 많은 상인을 쫓아 돈을 빼앗고, 돈이 떨어지면 버리는 행태로 치부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금과 정승,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속인 사기꾼인 셈이다.

만덕의 행위가 사실이든 아니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만덕을 바라보는 심노승의 시각에 있다. 체제공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만덕의 행위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심노승은 만덕의 행위 결과를 서두로 잡고 있으나, 행위 결과보다는 오히려 만덕의 치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체제공은 만덕이 제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체제공이 관심을 가진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부합되게 행동한 만덕의 행위 결과이다. 그러나 심노승은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둔 것이다. 따라서 만덕은 비굴하게 재산을 모았고, 그러한 만덕의 행위에 대해 동료들까지 손가락질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제공의 <만덕전>에는 10%의 재산을 친족을 구제하기 위해 썼다는 기록도 있으나,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에는 그러한 기록은커녕 오히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 만덕은 치부를 위해 형제도 돌아보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만덕의 치부가 정당하지 못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심노승은 만덕을 비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자 한 대상은 만덕이 아니었다. 심노승은 궁극적으로 추악하게 재산을 모은 만덕을 위해 전을 짓고 추켜올리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관직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늘 병마와 싸우고 있던 심노승은 조정의 학사들이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타당치도 않은 인물’의 전을 짓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의로운 행위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

을 맞춰 “명과 실이 어긋나는” 사태를 마음껏 비웃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심노승은 <만덕 이야기>를 통해 지배층의 한심한 태도를 마음껏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계섭전> 말미에 다시 그와 상반되는 <만덕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3) 劉在建의 <萬德>과 趙秀三의 <萬德> : 이야기의 기호로써 수용

유재건(1793~1880)의 『이향견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 이야기>는 출전을 『樊巖集』으로 밝히고 있듯이, 한두 글자의 출입은 있으나, 채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향견문록』에 전재된 <만덕>이 비록 채제공의 <만덕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채제공의 <만덕전>과 동일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채제공이 <만덕전>을 쓸 때와 유재건이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만덕>을 ‘베껴 쓸’ 때의 시간적인 거리가 이미 65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재건이 <만덕>을 수록할 때의 동기가 채제공과는 전혀 다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제공은 <만덕전>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만, 유재건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양반층을 제외한 ‘里鄕의 다양한 인물들’ 중에 특기할만한 이야기를 추려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유재건에게 채제공의 <만덕전>은 ‘여성들’의 이야기 30편 중에 한 편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재건이 비록 채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유재건 일개인의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일 뿐이지, 결코 다른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유재건이 채제공의 <만덕전>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유재건이 만덕의 행위를 이야기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다른 이념이나 지배층에 대한 비판같은 것은 들어 있을 수가 없다. 단순히 흥



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만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40)</sup>. 이 점은 유재건이 <만덕>을 전사하고 난 후, 이어 출전을 『凡谷記聞』으로<sup>41)</sup> 밝히고 있는 한 편의 시를 더 소개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 기생 홍도(紅桃)가 시를 지었는데,

女醫行首耽羅妓	여의 행수 탐라 기생이
萬里層溟不畏風	만리 바닷길 풍파도 두려움 없이 건너와서
又向金剛山裡去	이제 또 금강산으로 향하니
香名留在却坊中	향기로운 그 이름 교방에 남아 있네 <sup>42)</sup> .

위의 시는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보이는 교술적인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 만덕이 백성을 진휼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채주 ‘기생’ 만덕이 바다를 건너오고, 금강산을 구경한 일에 탄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기생으로서 일종의 감탄과 부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재건은 채제공의 <만덕전>을 수용하여 移寫한 후에 이 시를 넣고 있다는 점에서, 유재건이 <만덕 이야기>를 수록한 것은 다른 의도가 없이, 단순히 한 여성이 기이한 일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조수삼의 『추재기이』 수재의 <만덕> 역시 유재건의 경우와 비슷하다. 조수삼은 시를 짓기에 앞서 짤막하게 그 시를 짓는 데 따른 并序라 할 만한 부대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만덕> 역시 그러한 짧은 이야기 71편 중의 한 편인 셈이다.

40) 당시는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는 것이었다. 유재건도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를 이처럼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는 방식으로 『이향견목록』을 편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 『범곡기문』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작품집 중의 하나이다. 각종 『고서목록』에도 이 이름은 보이지 않아 일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2) 유재건, 『이향견목록』, 『里鄉見聞錄·壺山外記 合本』, 아세아문화사, 1974. 247쪽.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에 눈동자가 들어 있었다. 정조 임자년(역사: 1792년)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 천 석의 곡식과 수 천 켤미의 돈을 내어 일읍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만덕은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의 행수로 귀속시켰다. 인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懷淸臺築乙那鄉	회청대를 <sup>43)</sup> 을나의 고향인 제주도에 지어 놓고
積粟山高馬谷量	곡식을 쌓아 둔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
	았구나
賦汝重瞳眞不負	네게 겹눈동자를 내어 주신 것에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朝瞻玉階暮金剛	아침에는 궁궐을 보고, 저녁에는 금강산도 구경하
	였구나 <sup>44)</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그 기본적인 서사 골격은 체제공의 <만덕전>과 유사하다. 조수삼 역시 체제공의 <만덕전>을 읽었거나 들었던 기억에서 그 주요 골자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체제공의 <만덕전>과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한 일을 기술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조수삼이 만덕의 행위에만 관심을 보였고, 만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감동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시기도 1795년이든

43) 회청대는 바에 살던 과부 淸이 있었는데, 재산이 요부하고 정절을 지켜 진시황이 그녀를 손님으로 대우하고 그녀를 위해 지어 준 臺이다. 때문에 (女)懷淸臺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성이 천하에 드날린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史記』貨殖列傳을 참조할 것.

44) 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578쪽. “萬德 濟州妓也 家貨鉅萬 一隻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陛 一見金剛 遂命騎駟 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懷淸臺築乙那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金剛”

1792년이든 상관없이 없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풀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조수삼에게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며, 또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역시 의미가 없다. 만덕은 기특한 탐라의 한 여인일 뿐이다. 그리고 <만덕> 역시 조수삼에게는 기특한 여인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sup>45)</sup>.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흥년에 제주 도민을 위해 구휼한 기특한 한 여성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을 제시하면서도 시대상이나 이념 등을 담지 않고, 단순히 야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시대적인 목적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음을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적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 4) 구비문학 : 매너리즘

제주 도민 중에 만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구전되는 만덕 이야기가 채록된 것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다음의 기록이 전부이다<sup>46)</sup>.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 흉년에는 아사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

---

45) 윤재민, 『조선 후기 중인층의 한문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211쪽.

46) 필자는 『구비문학대계』, 『제주설화집성』, 『제주도전설』, 『남국의 민담』 등을 포함한 단행본과 제주대 국문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발행되는 『국문학보』와 『백록어문』의 학술조사편을 살펴보았지만 만덕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따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겸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가지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 온다<sup>47)</sup>.

위 자료는 진성기가 1958년에 용담동에서 채록한 이야기다. 그 내용이 나 형식은 완전히 채제공의 전을 축약한 듯한 느낌을 준다. 만덕이 도민을 구휼한 시기가 사실과는 달리 갑인년(1794)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골격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구술자가 채제공의 전을 토대로 구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자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채록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제주 도민에게 만덕은 단순히 이야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금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설화 조사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만덕 이야기>에 관한 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양중해가 개작하여 쓴 <김만덕의 자전><sup>48)</sup> 보면 정조가 만덕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만덕은 그 손을 명주로 감아 평생 더럽히지 않았다는 속설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곧 <만덕 이야기>가 충분히 구비 설화로 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만덕 이야기>는 구비 설화로 전승되지 못하였다.

47)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4판). 236쪽.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 고부길談.

48) 양중해, <김만덕의 자전>,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108~161쪽.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구비문학으로서 <만덕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보이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만덕 이야기>는 화석화되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제주 도민에게 신화적인 인물로까지 부상된 만덕은 또 하나의 이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만덕상의 제정, 만덕관의 건립 등으로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비문학은 민중들에 의해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 묶여 버렸을 때, 그 이야기는 생동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이야기가 구비문학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이야기는 민중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즉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민중을 구속하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덕은 제주 도민에게 아직도 영원한 ‘久遠의 女像’이다. 채제공의 기술에서처럼 백성들이 만덕으로부터 구휼을 받았을 때 모두가 “나를 살려 준 사람은 만덕일세(活我者萬德)” 이라 칭송할 만큼 만덕은 그 때부터 제주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덕을 生佛처럼 여기며 만덕을 노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을 민중의 편에서가 아닌 관의 입장에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입됨으로써 민중들은 더이상 구비문학으로 <만덕 이야기>의 전승은 끊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5. <만덕 이야기>의 전승 의미

실존 인물이 문학 작품의 정면에 대두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인물은 사회에 의해 해석이 되게 된다. 작가는 被傳者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희생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피전자는 사회의 희생물이 된다. <만덕 이야기>는 이러한 전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치부를 하여 대기근 때에 자신의 재산을 흠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의인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당시에 지배층인 채제공과 그와는 상반되는 위치에 있었던

심노승의 견해는 다르다. 이는 피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작가의 눈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채제공은 당시의 지배층으로서 만덕을 본 적도 없었지만, 만덕의 행위가 자신들의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에 굳이 만덕의 행위 결과만으로 작품을 만들어 후세까지 유전시켰다. 채제공에게 만덕은 단순히 자신의 이념의 잣대에 잘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반면 심노승에게 만덕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만덕의 행위 결과보다는 행위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여 자신과 상반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심노승에게 만덕은 지배층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셈이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실존 인물을 이야기화하는가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창작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사회에 침윤하게 된다. 상반된 이야기 중에는 설령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층의 작품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층의 지은 작품은 사회 속에 무르녹게 된다. 그러나 이 때 그 작품은 애초의 이데올로기나 비판은 사라지고, 다만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골자만으로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유재건과 조수삼에게 만덕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의 하나일 뿐이다. 여성으로서, 기생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홀어 제주 도민을 구휼한 만덕에 대해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만덕을 무슨 이유로 작품화시켰는가에 대한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조수삼과 유재건은 만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문헌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한 인물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는 그 인물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감산삭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만덕에 관한 한 구비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제주 도민들은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 라고 칭송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민중들의 곁에 있던 인물이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침윤되어 버렸을 때, 민중들은 더이상 자신들의 주변 인물로 만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의해 숭앙되는 인물로 만덕은 부상되었던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만덕은 신화적인 인물로 숭앙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만덕은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6. 맺는 말

이상으로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앞의 논지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키로 한다.

만덕은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인물로 1795년 제주도의 대홍년 때 재산을 내놓아 제주 도민들을 구휼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게 된다. 그러나 만덕이 도민을 진휼하기 이전부터 제주도는 심한 기근에 놓여 있었고, 高漢祿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자신의 사재를 내놓아 구휼하고 있었다. 만덕은 이 중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어 당시 제주 여성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갈 수 없는 것이 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갈 수 있었다. 만덕이 이러한 행위는 장안에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만덕과 관련한 글을 남겼다.

채제공은 <만덕전>을 썼는데, 이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만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씌어진 심노승의 만덕은 지배층이 아닌 입장에서 만덕을 보고 있다. 전자가 만덕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면, 후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는 그 인물에 대한 포폄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 것이다. 채제공은 당시 지배층으로 있었기에 기강의 확립을 위해 지배 이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만덕의 행위는 채제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적절하였기 때문에 만덕의 어떻게 치부를 했는가에 대한 관심

보다 그 결과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 심노승은 당시 환로에 나아가지 못한 선비였던 까닭에 자신이 제주에 있으면서 들었던 만덕의 추악한 치부 과정을 밝히고 그런 만덕의 행위를 앞을 다투어 칭찬하고 있는 당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위해 <만덕 이야기>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심노승에게 만덕은 단순히 당시 지배층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만덕의 행위는 사대부들이나 여항간에서 단순히 기이한 행위를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유재건은 채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베껴쓰고 있으나, 그 수록의 동기는 채제공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한 여성으로 제주 도민을 구휼한 기특한 사건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점은 조수삼도 동일하다.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만덕>을 제시하면서도 시대상이나 이념 등을 담지 않고, 단순히 야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시대적인 목적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음을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적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만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비문학으로 채록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만덕이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제도로 만덕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구비문학으로서 생명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덕은 더이상 '내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Man Duk story's Transmission and Variation

Kim, Joon-hyeong  
Korea Univ.

## Summary

Man Duk lived in 18 century in Che-Ju. She relived Che-Ju people by distributing her fortune when Che-Ju had bad crop in 1795. The Chosun Court invited her to the capital city, and she could go sightsee to Mt. Kumkang because of for compensation of her good conduct even though Che-Ju women couldn't go to the mainland in 18 century's law. With this, many learned men wrote about her life story.

Choi Jea Kong wrote <Man Duk - Chon> to build up Chosun court's ideology; therefore, the <Man Duk - Chon> just focused the result of Man Duk's good conduct without Man Duk's lifestyle during her whole life. however, Sim No Sung who was not a government official wrote a opposition story about Man Duk with Mr, Choi. Mr, Sim focused Man Duk's whole lifestyle in his work. Mr, Sim insisted on that Man Duk's whole life was no good because she accumulated by some bad formulas. Although it just looked like to criticize to Man Duk, it, in fact, satirized government official by the Man Duk's story. After half century, Yoo Jae Geun and Cho Su Sam each wrote about <Man Duk>. They just understood Man Duk's story that was a topic of conversation without any political issue.

Even though most Che-Ju people know Man Duk's story, it is so hard to find any collected folktale about Man Duk story's. these day.

Man Duk's story is not existed any more between Che-Ju people because one ideology is holding Man Duk until now. however, Che-Ju people believe that Man Duk is the statue of eternity.